

## [1~3]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데카르트에게서 정신은 물체에 비해 더 명중하게 지각된다. 이러한 사실을 인정할지라도 애초에 정신은 어떻게 물체를 인식할 수 있는가? 이 물음에 누군가는 물체에 대한 관념이 정신 바깥의 물체에 의해 외래적으로 산출된다고 답변할테지만, 데카르트는 이 가설을 거부한다. 그에 따르면 물체 관념을 포함한 정신 내 모든 관념은 그 자체로 본유적이다. 그러니까 정신이 물체 관념을 본래부터 가지고 있었기에 정신이 물체를 인식할 수 있다는 것이다.

물체 관념의 본유성에 대한 데카르트의 주장은 초기 저작부터 후기 저작까지 그 일관성을 잃지 않고 있다. 예컨대 <정신지도규칙>에 따르면 연장, 형태, 운동과 같이 인식과 관련하여 가장 단순한 것들인 단순 본성이 존재하는데, 그것들은 그 자체에 어떠한 오류도 포함하지 않는다. 한편으로 다른 저작을 살펴보면 모든 인식의 출발점이 되는 원초적 개념 가운데 물체와 관련된 개념, 곧 연장과 운동 개념이 포함되어 있다고 데카르트는 말한다. 그러나 본유성에 관한 데카르트의 주장은 상식적 반박에 부딪히게 된다. 우리가 외부 대상을 인식하기 전부터 우리 정신 안에 그 대상에 대한 관념이 존재한다는 것에 동의할 수 있는가? 심지어 데카르트는 물체의 감각적 성질에 대한 관념까지 본유적이라 주장하는데, 우리는 과연 이러한 주장을 수긍할 수 있을까?

데카르트의 <셋째 성찰>에서는 ‘나’라는 정신 안의 관념들이 기원에 따라 본유적 관념, 외래적 관념, 조작적 관념으로 나뉘게 된다. 다만 이러한 분류를 데카르트는 임시적인 것에 불과하다 말하면서 “어쩌면 내 모든 관념들은 모두 외래적이라고, 혹은 모두 본유적이라고, 아니면 모두 만들어졌다고 여길 수 있다고 언급한다. 그런데 데카르트가 그 외 저술에서 내안의 모든 관념이 본유적이라고 주장한 데서, <셋째 성찰>의 내용은 그의 철학에서 해석상의 주요 쟁점을 야기한다.

<프로그램에 대한 주석>에서는 ① 데카르트가 결코 수용할 수 없었던 레기우스의 주장이 나타난다. 레기우스에 따르면, 정신은 본유적인 관념을 필요로 하지 않으며, 그것의 활동을 수행하는 데에는 사유 능력만으로 충분하다. 이는 정신 안에 새겨진 모든 것들이 사물의 관찰로부터 기원한 것이라는 주장으로 귀결된다. 이에 대항하여 데카르트는 본유 관념의 존재를 옹호하며, 심지어 그 과정에서 정신 안의 모든 관념이 본유적이라고도 말한다. 우선 데카르트는 레기우스와 마찬가지로 정신은 본성상 사유하는 것임을 밝힌다. 그런데 이러한 본유적 능력으로부터 유래한 어떠한 관념이 존재한다. 데카르트는 이것이 외부 대상들로부터 받아들인 관념도 아니고, 내 의지가 만들어낸 관념도 아니라고 본다. 이를 바탕으로 그는 그 관념이 잠재적으로 우리 안에 항상 존재한다고 주장한다. 이에 따르면, 정신 안의 관념 중 본유적이지 않은 것은 아무것도 없다. 그리고 그러한 관념들은 외부 대상이나 내 감각기관을 통해 들어온 것이 아닌데, 이러한 생각은 물질과 정신을 엄격히 구분하는 이원론적 사상에 바탕을 둔다.

하지만 <프로그램에 대한 주석>의 논의에 관해서는 상식적 의문이 제기될 수밖에 없다. 정신 안에 물체 관념이 어떻게 잠재적으로 존재할 수 있는가? 비물질적인 것에 대한 관념이 본유적이라는 주장에 비해 물체 관념이 본유적이라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훨씬 더 어려워 보인다.

## 1. 윗글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데카르트에 따르면, 물체 관념은 그 종류와 무관하게 외부 대상이 생겨나기 이전부터 존재한다.
- ② 모든 관념이 그 자체로 본유적이라는 데카르트의 생각은 그의 일생에 있어 견고하게 유지되었다.
- ③ 나의 정신에 어떤 물체에 대한 관념이 존재할 때 비로소 그 물체를 인식할 수 있다는 생각은 상식적으로 여겨진다.
- ④ 모든 관념이 그 자체로 본유적이라는 데카르트의 주장은 <정신지도규칙>에 등장하는 단순 본성과 원초적 개념에서 정초된 것이다.
- ⑤ <셋째 성찰>에 따르면, 외부 사물에서 유래되었거나 정신이 지닌 의지로부터 형성된 것이 아닌 모든 관념은 본유적 관념에 해당한다.

## 2. 윗글에서 답을 찾을 수 있는 질문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정신이 물체보다 시간적으로 앞서서 지각되는 근거는 무엇일까?
- ② <셋째 성찰>에서 데카르트가 논의한 관념의 유형이 그의 철학에서 논란을 일으키는 이유는 무엇일까?
- ③ 모든 인식의 시발점이 되는 원초적 개념에 연장이나 운동과 같은 물체 관념이 포함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일까?
- ④ 관념의 본유성에 대한 데카르트의 주장이 초기 저술부터 후기 저술까지 비판으로부터 자유로웠던 이유는 무엇일까?
- ⑤ 물질에 대한 관념과 정신에 대한 관념이 이원론적으로 엄밀하게 구분되어야 한다는 데카르트의 주장에 대한 근거는 무엇일까?

## 3. ①에 해당하는 것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정신의 사유 능력은 본유적으로 주어진 것이다.
- ② 관념 자체는 그것의 위치와 무관하게 존재할 수 없다.
- ③ 오로지 지성의 사유 능력만이 정신 활동을 규정할 수 있다.
- ④ 본유적 관념은 외부 사물이나 나의 감각기관으로부터 생성될 수 없다.
- ⑤ 정신의 활동이란 내가 가진 사유 능력과 무관하게 주어진 본유적 관념에서 수반된 결과이다.